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사업 2022

지역, 잇다

KOFICE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사업 2022

지역, 잇다

KOFICE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사업 2022

지역, 잇다

Local Culture
for International Exchange
with Korea

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사업

목차

기관 및 사업 소개

6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 소개

8 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사업(LIN.K) 소개

국제문화교류 추진지원

20 경남 진주 | 인도네시아
진주문화관광재단 [인도네시안 바틱과 진주실크의 이야기]

28 경북 예천 | 캐나다
예천국제스마트폰영화제조직위원회 [제4회 예천국제스마트폰영화제]

36 전남 담양 | 중국
담양군문화재단 [공간의 재해석과 저장]

44 충남 보령 | 베트남
㈔문화자원진흥원 [보령시 무형문화재 기반 베트남 한글 손글씨(캘리그래피) 문화 확산]

52 충북 청주 | 네덜란드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치유의 연희(Healing Performance)]

60 충북 충주 | 우즈베키스탄
㈔세계무술연맹 [대한민국-우즈베키스탄 수교 30주년 기념 지역무형문화유산 교류]

국제문화교류 기획지원

70 전북 순창 | 미국
극단 녹두 [창작 뮤지컬《오버 더 레인보우》]

국제문화교류 자문단 특별기고

78 홍유정 지역문화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철학
: 다시 열린 글로벌, 지금부터가 진짜 경쟁

81 김상미 예술 로컬리즘

84 박다솔 지역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제언
: 먼 곳에서, 가장 가까운 마음으로

88 김성일 BIAF 국제 네트워크, 그 우연과 만남의 순간들
-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로 보는 지역 기반 축제의 해외네트워크 구축 전략

부록

92 역대 참여 사업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Korean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www.kofice.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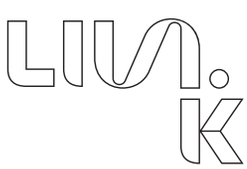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2003년 설립 이후 다양한 문화교류로 국가 간 상호 이해와 우호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지난 2018년에는 '국제문화교류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문화로 한국과 세계를 잇는 네크워크 허브'를 비전으로 국내외 문화예술 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문화교류의 자생적 성장을 위해 지역·민간 주도 국제교류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국내 문화예술 유관기관 간의 협의체를 운영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국경을 초월한 쌍방향 문화교류 행사를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진흥원은 앞으로도 활발한 국제문화교류 활동을 통해 문화를 매개로 한국과 세계를 잇는 네트워크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사업

Local Culture for International Exchange with Korea



국제문화교류의 주축이 국가와 공공에서 지역과 민간으로 이동함에 따라, 지역·민간 주도의 교류사업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기초지자체와 지역 문화예술단체·기관이 주도적으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완성도 높은 국제문화교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사업(前 지역 우수 문화교류 콘텐츠 발굴·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27개 지역 37개의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사업'은 각 지역이 보유한 문화예술 콘텐츠의 가치를 국내외로 널리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기초지자체와 지역 문화예술단체·예술인들은 지역의 우수한 유·무형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사업'은 '국제문화교류 추진지원'과 '국제문화교류 기획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지원'에서는 당해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전국 기초지자체와 지역 문화예술단체 및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예산과 전문가 자문을 지원합니다. '기획지원'에서는 다음 해 추진 예정인 사업을 대상으로, 기초지자체와 지역 문화예술단체·기관의 사업기획력 제고를 돕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공연 및 축제, 시각, 지역문화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일회성 지원과 단발성 교류에 그치지 않도록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관리 프로그램을 지향합니다. 따라서 기획지원을 통해 고도화된 국제문화교류 사업계획 중 우수기획으로 선정된 사업에는 다음 해 추진지원 공모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합니다. 추진지원에서도 우수사업을 선정하여, 다음 해 추진지원 공모 참가자격 및 연속지원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렇게 기획지원 → 추진지원 → 추진지원 우수사업 선정 → 연속지원 등의 단계적 사업 고도화 및 지원을 통해 쌍방향 국제교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국제문화교류 추진지원

기초지자체와 지역 문화예술단체·기관 간 협업 방식의 국제문화교류 사업예산 및 사업관리 지원

지원대상

전국 기초지자체 및 해당 지자체 내 민간 문화예술단체·기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자치구, 행정시 제외)

지원내용

- 사업예산: 국제교류 사업기획 및 추진에 필요한 예산 최대 1억 원 이내(총 사업비의 90% 이내)
- 전문가 자문: 분야별 전문가 매칭 및 자문 제공

지원규모

총 6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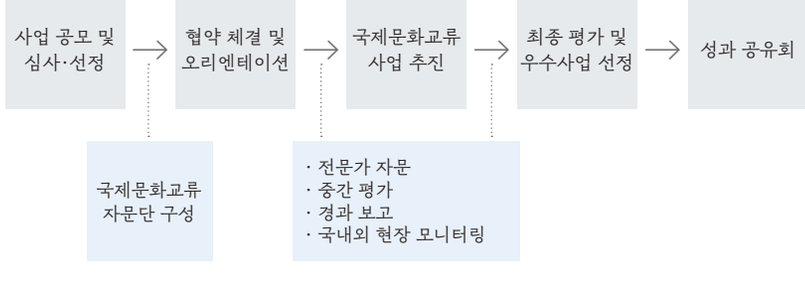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10% 이상 지방비 확보
- 진흥원-사업수행단체-지자체 간 3자 협약 체결

사업 참여방법

- 연초 e나라도움을 통한 공모 신청
- 지자체와 지역 문화예술단체·기관이 협력한 사업계획 제출

운영절차



2022년 참여 지역 및 단체

연번	지자체	수행단체	교류지역	분야	사업명	비고
1	경남 진주시	진주문화관광재단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전시, 워크숍, 패션쇼	인도네시안 바틱과 진주실크의 이야기	'22년 우수사업 선정
2	경북 예천군	예천국제스마트폰영화제조직위원회	캐나다 토론토	국제영화제, 시사회	제4회 예천국제스마트폰영화제	
3	전남 담양군	담양군문화재단	중국 광저우, 선전	전시, 공간교류, 플랫폼 구축	담빛예술창고 '노드'를 저장하다	
4	충남 보령시	(사)문화자원진흥원	베트남 하노이	전시, 워크숍, 캘리그래피	보령시 무형문화재 기반 베트남 한글 손글씨 (캘리그래피) 문화 확산	
5	충북 청주시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아인트호벤, 로테르담, 헤이그, 델프트	공연, 워크숍	치유의 연희 (Healing Performance)	
6	충북 충주시	(사)세계무술연맹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공연, 워크숍, 전시, 무술	대한민국-우즈베키스탄 수교 30주년 기념 지역무형문화유산 교류	'22년 우수사업 선정

국제문화교류 기획지원

다음 해 추진 예정 국제교류 사업의 기획 완성도 제고 및 수행단체 역량 강화 지원

지원대상

전국 기초지자체 및 해당 지자체 내 민간 문화예술단체·기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자치구, 행정시 제외)

지원내용

- 역량 강화 교육: 지자체 및 수행단체의 국제문화교류 기획·추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전문가 자문: 사업기획안 보완 및 개선을 위한 자문 제공
- 사업준비 예산: 우수사업으로 선정 시 다음 해 사업추진 및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예산 일부 지원(최대 500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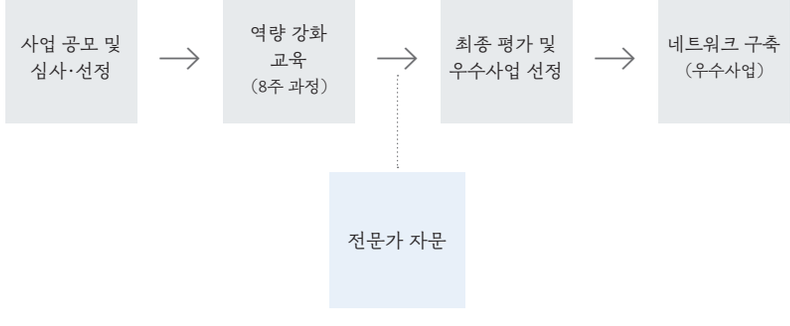
지원규모

총 3개 사업

사업 참여방법

- 이메일(lin.k@kofice.or.kr)을 통한 공모 신청
- 지자체와 지역 문화예술단체·기관이 협력하여 다음 해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국제문화교류 사업계획 제출

운영절차



2022년 참여 지역 및 단체

연번	지자체	수행단체	교류지역	분야	사업명	비고
1	강원 춘천시	유니마 코리아	벨기에 브뤼셀, 체코 플젠 등	인형극	JEM Festival in Chuncheon puppetry week	
2	전북 순창군	극단 녹두	미국 LA	공연	창작 뮤지컬 《오버 더 레인보우》	'22년 우수사업 선정
3	충남 천안시	SWEEP 엔터테인먼트	미국 오레곤주 비버튼시	공연, 워크숍	국제예술교류 한결음	

2022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소개

일정	방식	주제
1주 (6.14.화)	대면	• [오리엔테이션] 선정기관 소개 및 사업계획안 공유 • [강의] 지방의 국제화란? – 김진아(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협력부 부장) • [자문] 자문위원 대면 자문
2주 (6.21.화)	비대면	• [강의1] 국제문화교류의 이해 – 박지선(프로듀스그룹 도트 대표) • [강의2] 지역문화 콘텐츠 정책과 방향 – 김세준(숙명여자대학교 문화관광외식학부 교수)
3주 (6.28.화)	비대면	• [강의1] 지역문화의 발견과 국제교류 콘텐츠화 방안 – 안민영(독립문화기획자) • [강의2]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브랜딩과 홍보마케팅 – 홍유정(㈜하스카, 기획자의 집 대표)
4주 (7.5.화)	대면	• [사례 공유] '20~21년 우수사업 사례 및 추진 노하우 공유 – 김포문화재단(경기 김포), 시화풍정 담소(전남 해남) • [자문] 자문위원 대면 자문

일정	방식	주제
5주 (7.12.화)	비대면	• [강의1] 국제문화교류와 법 – 캐슬린 김(법무법인 리우 미국 뉴욕주 변호사) • [강의2] 공연예술 국제교류의 이해 – 유병진(공연예술 프로듀서·리서처·에디터)
6주 (7.19.화)	비대면	• [강의1] 국제교류 사업의 예산편성과 집행 – 김진영(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전통문화콘텐츠팀 책임) • [강의2] 문화예술 콘텐츠 브랜딩하기 – 김여항(국립현대무용단 홍보마케팅팀 팀장)
7주 (7.26.화)	대면	• [현황 공유] 단체별 자문 추진내용 및 사업계획 현황 공유 • [자문] 자문위원 대면 자문 • [강의] 국제문화교류 해외네트워크 구축 전략 – 최민호(남산국악당 실장)
8주 (8.2.화)	비대면	• [강의1] 팬데믹과 국제문화교류: 적응을 통한 지속가능한 변화로 – 류효봉(문화예술 사회적기업 ㈜노리단 대표) • [강의2] 메타버스와 국제문화교류 – 황서이(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 연구교수)

국제문화교류 자문단

지역 국제문화교류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단 운영

운영규모

공연 및 축제, 시각, 홍보·브랜딩, 지역문화 분야 전문가 11인

주요활동

- **사업 전 과정의 전문 자문 제공**
  기획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지역 간 문화교류 방향 설정, 교류 프로그램 구체화 방안 제시
- **현장 밀착형 제언으로 사업추진 협력**
  사업 분야별 자문단 운영으로 사업 완성도 제고
- **국제문화교류 역량 강화 교육**
  쌍방향 문화교류 실현을 위한 국제문화교류 이해도 제고, 지역 간 네트워크 구축 등 지속가능한 교류 방안 전수
- **피드백 및 모니터링**
  지표에 근거한 사업평가 후 피드백 제공, 현장 방문 등 대면·비대면 자문을 통한 사업추진 현황 점검

당해 연도 추진사업 자문	다음 연도 기획사업 자문
교류사업 자문	역량 강화 교육
현장 모니터링	사업계획안 자문

운영절차

1. 공모 심사 및 선정
   ◦ 지역 국제문화교류 사업계획안 평가 및 기초지자체·사업수행단체 선정
2. 자문위원단 위촉
   ◦ 국제문화교류 자문단 구성 및 자문위원 위촉
3. 사업별 자문위원 전담 지정
   ◦ 선정사업 특성에 맞는 분야별 전문가 전담 지정
4. 밀착 자문 및 역량 강화 교육
   ◦ 사업 착수-운영-모니터링-단계별 전문가 자문 지원
   ◦ 지역문화, 콘텐츠 기획, 국제교류, 홍보·브랜딩 등 다방면 자문 분야
   ◦ 국제문화교류 사업기획 및 프로그램 성과 확대를 위한 교육

2022년 국제문화교류 자문단

연번	이름	소속 및 직책	전담 기관(지역)
1	김민경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 센터장	진주문화관광재단 (경남 진주시)
2	김상미	㈜블루버드씨 대표이사	유니마 코리아 (강원 춘천시)
3	김성일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수석 프로그래머	예천국제스마트폰영화제 조직위원회(경북 예천군)
4	김재환	경남도립미술관 학예연구사	담양군문화재단 (전남 담양군)
5	박다솔	공연예술 프로듀서 /웹진《춤in》편집위원	㈔세계무술연맹 (충북 충주시)
6	서상혁	공연예술 프로듀서 /문화예술콘텐츠랩 축제행성 대표	㈔문화자원진흥원 (충남 보령시)
7	안민영	독립문화기획자	극단 녹두(전북 순창군)
8	유병진	공연예술 프로듀서·리서처·에디터	SWEEP 엔터테인먼트 (충남 천안시)
9	차재	스튜디오 음머 대표	전체
10	최민호	남산국악당 실장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충북 청주시)
11	홍유정	㈜하스카/기획자의 집 대표	전체

국제문화교류 추진지원

20 경남 진주 | 인도네시아
진주문화관광재단 [인도네시안 바틱과 진주실크의 이야기]

28 경북 예천 | 캐나다
예천국제스마트폰영화제조직위원회 [제4회 예천국제스마트폰영화제]

36 전남 담양 | 중국
담양군문화재단 [공간의 재해석과 저장]

44 충남 보령 | 베트남
㈔문화자원진흥원 [보령시 무형문화재 기반 베트남 한글 손글씨(캘리그래피) 문화 확산]

52 충북 청주 | 네덜란드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치유의 연희(Healing Performance)]

60 충북 충주 | 우즈베키스탄
㈔세계무술연맹 [대한민국-우즈베키스탄 수교 30주년 기념 지역무형문화유산 교류]

진주문화관광재단
[인도네시안 바틱과 진주실크의 이야기]



〈인도네시안 바틱과 진주실크의 이야기〉

[인도네시안 바틱과 진주실크의 이야기] 사업은 진주의 실크와 인도네시아 바틱과의 문화교류사업이다.

바틱과 진주실크는 전통문화라는 면에서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 그러나, 현실적인 면에서 전통 소재와 디자인의 한계 등으로 성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역과 지역문화 국제교류를 진행하게 되었다.

사업에는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바틱 디자이너 조세핀 코마라와 한국의 한복 디자이너 박선옥이 함께 참여했다. 진주실크에 바틱(Batik)염색을 하기 위해 40여 종의 진주실크에 염색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결과물에 적합한 진주실크를 선정한 뒤 워크숍을 통해 공동결과물을 제작하였다. 공동결과물을 활용한 진주실크-바틱 의상과 한국의 한복을 활용하여 패션전시회를 개최했으며, 한국 드라마, K-POP 등이 인도네시아인들의 차림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현지의 많은 언론사 등이 크게 관심을 보였다. 또한 인도네시아 바틱 아티스트들이 한국의 진주라는 도시에서 고품질의 실크가 생산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처럼 진주실크-바틱 문화교류를 매개로 더욱 다양한 시장의 확대를 기대하게 되었고, 인도네시아와의 지속적인 문화콘텐츠 교류사업으로 진주실크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기회도 확대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업 개요

사업명	인도네시안 바틱과 진주실크의 이야기
분야	전시, 워크숍(패션)
참여 지자체	진주시
사업수행기관	㈜진주문화관광재단
교류지역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요 교류기관	기로에, BINhouse, 한국실크연구원, KOCCA 인도네시아 비즈니스센터

사업수행기관 소개

• 진주문화관광재단

진주문화관광재단은 진주시 출자 출연기관으로 지역 문화예술 발전 및 관광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적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진주문화관광재단은 지역 특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예술인의 창작역량 강화, 문화예술관광 콘텐츠 산업 육성 및 브랜드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진주시는 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회원 도시로서 다양한 교류사업을 진행 중이다.

교류지역 소개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바틱'이 2009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계기로 제2의 부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진주시 또한 세계 5대 실크 명산지로 2020년 민속·공예 분야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선정되었으며, 창의산업 중 하나인 진주실크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진주시 '실크'와 인도네시아 '바틱'의 문화교류를 통해 향후 상호 전통문화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산업 교류 기반을 구축하고, 교류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한다.

교류기관 소개

• 기로에

사업에 참여한 한복 디자이너 박선옥의 디자인은 전통 복식과 기저에 깔린 동양철학을 바탕으로 사대부들의 올곧은 정신과 세련미를 21세기 패션에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박선옥 디자이너가 운영하는 패션 브랜드 '기로에(GUIROE)'의 남성 한복 정장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2019 우수문화상품에 선정된 바 있다.

• BINhouse

사업에 참여한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바틱 공방 'BINhouse'의 대표이자 바틱 예술가인 조세핀 코마라는 인도네시아 전통 바틱 기술에 대한 열정과 홍보로 '국보'라고 불리기도 한다. 조세핀 코마라는 바틱 현대화 운동의 진정한 권위자이자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의 작품 역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

• 한국실크연구원

한국실크연구원은 실크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기술과 디자인, 부가가치 높은 제품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세계 최고의 실크 명품 창출에 힘을 쏟고 있다. 또한, 실크산업 발전에 필요한 생산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도, 보급과 기능인력 양성 ·연수로 실크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인도네시아 비즈니스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 인도네시아 비즈니스센터는 콘텐츠 기업의 동남아시아 진출을 위해 동남아 최대의 전력 거점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2016년 10월 신설되었으며, 현지 시장정보 제공과 상시 비즈니스 매칭 등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프로그램 세부 내용

워크숍 〈바틱에 물드는 진주실크 이야기〉 ('22.9.2.)	진주시 특화 전통산업인 '진주실크'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바틱'을 매개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진행하여 현대성과 대중성을 확보한 공동결과물을 제작하였다.

패션전시회 〈인도네시안 바틱과 진주실크의 이야기〉 ('22.11.11.~ 11.12.)	워크숍의 공동결과물을 활용한 의상 제작 및 제작된 의상의 발표(패션전시회)를 통해 향후 교류 기반을 마련했다.

성과

- 진주시 특화 전통산업인 '진주실크'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바틱'을 매개로 현대성과 대중성을 확보한 공동결과물 제작
- 결과물을 활용한 패션전시회를 통해 인도네시아와의 교류 기반 마련
- 진주문화관광재단 - 한국콘텐츠진흥원 인도네시아 비즈니스센터 - 한국실크연구원 업무협약(MOU) 체결
- 진주문화관광재단 - 한국콘텐츠진흥원 인도네시아 비즈니스센터 업무협약 체결(2022.11.13.)

참가자 통계

- 패션전시회 방문객 500명
- 패션전시회 개최식 60명
- 패션전시회 언론사 20개
- 워크숍 참가자 1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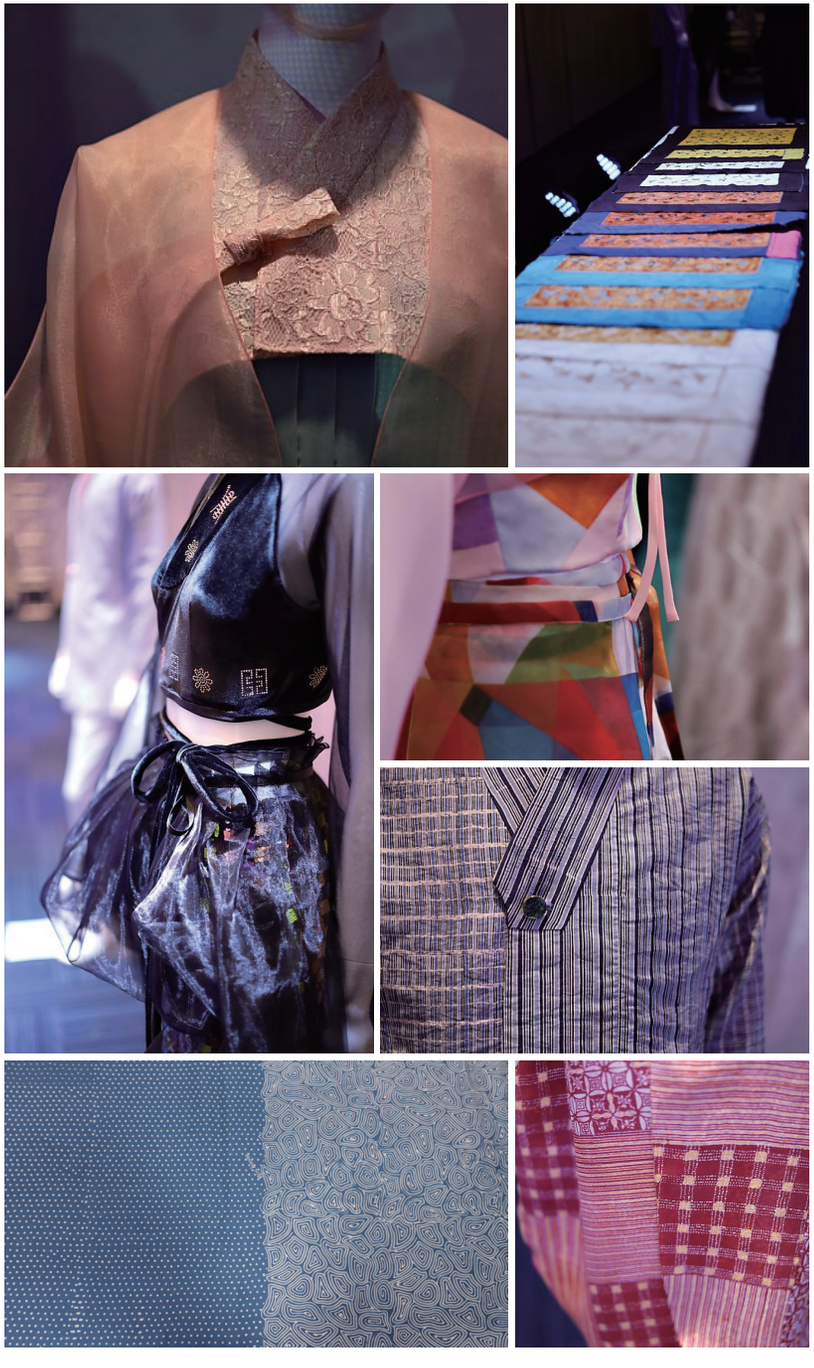
후속 교류

-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기념 진주실크-바틱 패션전시회 국내 전시 진행 예정(2023)
- 인도네시아 바틱 디자이너 교류 방문 추진 예정(2023)
-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진주실크 및 콘텐츠 산업의 시장 진출을 위한 협의 진행(2023)
- 주한인도네시아 대사관, 문화원 등 기관대상 사업 결과를 공유하며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파급 예정





진주실크-바틱 워크숍 진행 및 바틱 염색 프로세스를 통한 제작



의상용 실크-바틱 제작



패션전시회 〈인도네시안 바틱과 진주실크의 이야기〉 개최



패션전시회장 내부

예천국제스마트폰영화제조직위원회
[제4회 예천국제스마트폰영화제]



토론토스마트폰영화제

4회째 개최되는 예천국제스마트폰영화제는 10회째 개최되는 토론토스마트폰영화제와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인적 교류와 소통, 작품 교류, 자국의 영화제 홍보, 시사회 등을 진행하였다. 이는 양 영화제의 권위 상승은 물론 출품작들의 수준 향상과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영화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토론토 방문을 통해 예천영화제를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국내 작품 소개 및 국내 수상작품들의 글로벌 상영에 기여하였다. 또한 토론토영화제 측의 국내 초청이 성사되어 쌍방교류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토론토 현지에서는 대한민국 유일의 예천국제스마트폰영화제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고 예천영화제가 단기간에 성장한 것에 놀랐으며, 쌍방 교류를 환영하고 지속적인 교류로 서로 간의 시너지 확대를 원하고 있다.

예천은 대한민국의 오지 농촌 도시로서 국제영화제 개최에 대한 우려가 컸으나, IT를 활용한 스마트폰영화제는 지역의 한계를 넘어 대한민국 유일의 국제스마트폰영화제로 당당히 자리 잡았다. 희소성 있는 지역의 문화콘텐츠로서 국제교류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에서 6년 앞서 있는 토론토스마트폰영화제와의 교류를 희망하였으며, 성사되었다. 이번 교류를 통해 국제적인 작품 수급과 수준 향상이 기대된다.

사업 개요

사업명	제4회 예천국제스마트폰영화제
분야	영화(시사회, 상영회)
참여 지자체	예천군
사업수행기관	예천국제스마트폰영화제조직위원회
교류지역	토론토
주요 교류기관	토론토스마트폰영화제조직위원회

사업수행기관 소개

• 예천국제스마트폰영화제조직위원회

예천국제스마트폰영화제조직위원회는 2019년부터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국제스마트폰영화제를 개최해왔다. 지역 소도시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첫해에 해외 6개국 포함 202편의 작품이 참여했고, 매년 성장을 거듭해 현재 해외 11개국 포함 1천여 작품이 참여하는 성과를 일구었으며, 매년 신인감독 등용과 우수작품 창작의 밑거름이 되어 한국의 영화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지역을 대표하는 희소성 있는 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하여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역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국제교류의 필요성 어필과 교류 성과를 통해 앞으로 지역문화의 대표성을 띠고 글로벌 영화제로 성장시킬 수 있는 수행기관이라 사료된다.

교류지역 소개

• 캐나다

캐나다 토론토는 선진 문화예술도시로, 국제적인 대학으로 인정되는 토론토 대학이 있는 도시이며, 토론토 대학의 영화예술인 및 감독 출신들이 토론토스마트폰영화제에 참여하여 영화제의 위상과 작품 수준 향상에 영향을 미쳤다. 토론토는 토론토스마트폰영화제가 10회째 개최되면서, 이러한 전통을 지닌 도시로서 2020년부터 교류대상 지역으로 논의되었다.

또 한때 한인들의 해외 이민 1지망 도시로서, 다양한 민족이 어울리며 문화적 다양성이 보장되고, 영화예술 분야에서도 국제적 다양성을 가진 우수한 작품들이 많이 창작되고 있는 도시이다. 한인들의 주도하에 출범하게 된 토론토스마트폰영화제는 현재 다국적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 주 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글로벌 확장성을 키우고 있다.

주요 교류기관 소개

• 토론토스마트폰영화제조직위원회

한인들이 위주가 된 조직위원회가 출범하여 토론토스마트폰영화제가 시작되었으며, 10년째 이어지는 개최과정에서 지금은 다양한 국적의 조직위원들이 각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작품성 위주의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토론토영화제의 특색 있는 상영회를 통해 스마트폰 영화에 특화된 조직위원회로 인력 풀이 구성되어 있다. 현재 토론토에 주 사무국이 운영되며, 캐나다를 대표하는 스마트폰영화제를 진행하는 비영리 민간예술단체로 활동 중이다.

프로그램 세부 내용

토론토 ('22.6.10.~6.12.)	양 조직위 대면 워크숍(토론토 개막식장) 토론토 작품 상영회 참여 및 GV 참여 / 토론 토론토 작품 시사회 및 예천 작품 초청 상영 / MOU 진행 / 유튜브 촬영
예천 ('22.10.15.~10.16.)	양 조직위 대면 워크숍(예천 개막식장) 예천 작품 상영회 참여 및 GV 참여 / 토론 예천 작품 시사회 및 토론토 작품 초청 상영 / 토론회 진행/ 유튜브 촬영
업무협약식(MOU) ('22.6.12.)	영화제 폐막 이후 양 영화제 간의 MOU 협약 진행 - 상호 초청 방문 교류에 대한 협약 - 상호 간 초청작품 교차상영 - 온라인 상영관 개관에 따른 의견 교환(저작권 관련 내용) - 다국적 포함 국제기구 창설

해외인사 예천영화제 방문 ('22.10.15.~10.16)	- 주요 인사(조이스 챈, 니콜라스 바레타, 앤드류 장) 예천 초청 방문 - 워크숍 토론회 참여 - 상영회 및 초청시사회 참여(GV) - 개막식 특별초청 등의 국내영화제 참여일정을 진행하였음.

성과

- 양 영화제 교류 협약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교류 및 양 지자체 간 민·관 교류의 토대 마련
- 온·오프라인 상영관을 통한 작품교류 및 관람 제공
- 양 도시 간 홍보부스 활용을 통한 도시 브랜드 홍보 효과
- 양국 외 다국적의 교류기구 출범을 위한 토대 마련
- 예천국제스마트폰영화제의 국제적인 인지도 확장

참가자 통계

- 영화제 참가자(양국 포함): 1만여 명
- 작품 참여(양국 포함): 1,500여 작품
- 예천 홍보부스 방문객: 2일간 1천여 명
- 토론토 교류방문: 예천 측 5명
- 예천 교류방문: 토론토 측 3명
- 온라인 및 SNS 방문: 1천여 명

후속 교류

- 22년도 수상작품(예천, 토론토) 온라인상영회 예정
- 양국 스마트폰영화 감독 상호 교류 방문 및 워크숍 추진
- 양 도시 간 영화제 티저 영상 로케이션 제공 추진 예정



토론토스마트폰영화제(TSFF)와 예천국제스마트폰영화제(YISFF) MOU 체결식



토론토조직위 초청단과 예천조직위 간의 워크숍 토론



토론토스마트폰영화제 현장, 예천스마트폰영화제 홍보 포스터



토론토스마트폰영화제 현장, 예천국제스마트폰영화제 홍보부스 설치



제4회 예천국제스마트폰영화제 상영회, 조이스 챈 감독 작품《Catching Bandit》GV 진행



제4회 예천국제스마트폰영화제 개막 시상식

담양군문화재단
[공간의 재해석과 저장]



'재생된 공간 수집된 관계' 전시장

본 사업은 담양군의 '담빛예술창고'와 광저우 '대호당칠호창예술관', 선전 'TNT Contemporary'의 공간 콘텐츠 교류를 통하여 공간 교류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구축하였다. 또한 각국의 오래된 산업시설을 재생하여 만들어진 문화공간에서 전시 '재생된 공간 수집된 관계'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했다.

광저우 대용당칠호창예술관(大庸堂·柒号仓艺术馆)은 중국의 3대 도자기 생산지 광저우 남풍고조(南风古灶)에 위치하며 대표 예술관 중에 하나이다. 또한 홍콩 문제를 계기로 중국이 광저우시, 마카오시, 선전시를 무역·기술 중심의 3각 발전지구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고도성장 전략에 따른 문화예술지원 정책 확대의 수혜주로 손꼽히기도 한다. 대용당칠호창예술관의 위화(魏华) 관장은 광둥성 대학도예학술위원회, 광저우미술대학 교수, 중국예술연구원 위원으로, 국내외 인지도와 네트워크를 통해 전시 운영이 용이하기 때문에 본 사업의 교류대상이 되었다.

또 다른 교류기관인 TNT Contemporary는 세계 3대 유화 거리이자 중국 최대의 유화 도매시장인 다펀 유화 거리에 위치하며, 선전 지역에 기반을 두고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개인 갤러리이다. 국내외 예술인들에게 2,000㎡의 레지던시 공간과 전시를 제공하여 다양한 국가와 지역의 문화예술을 선보이고 있다.

이 두 기관은 지역문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시드머니 역할을 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와의 공간문화 연계사업을 매년 지속할 수 있는 시발점을 마련하며, 참여 예술인들의 해외 진출 및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분야별 인지도 부가가치를 상승시킨다. 또한 지역 특색에 맞는 융복합 작품을 제작하여 지역문화 브랜드로 홍보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교류사업이 되었다.

사업 개요

사업명	공간의 재해석과 저장
분야	전시(공간 교류 콘텐츠)
참여 지자체	담양군
사업수행기관	담양군문화재단
교류지역	중국 광둥(광저우, 선전)
주요 교류기관	대용당칠호창예술관(광저우), TNT Contemporary(선전)

사업수행기관 소개

• 담양군문화재단

'사람이 곧 문화가 되는 도시' 담양의 '신르네상스'를 슬로건으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문화자원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과 수준 높은 전시 및 공연 프로그램을 상시 진행하여 창조적 문화 활동과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교류지역 소개

• 광저우(廣州)

광저우는 2000년의 역사를 지닌 도시이자 중국의 3대 도자기 생산지역이다. 중국 광둥성(廣東省)의 성도로 주강 삼각주의 북단에 위치하여 서강·북강·동강이 합류하므로 수리가 편하여 일찍이 문화의 꽃이 피었다. 이처럼 교통이 편리하여 화남지방 최대의 경제무역 도시로 자리 잡았고 광둥성의 행정·경제·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2019년도부터는 '웨강아오대만구 발전계획요강(粤港澳大湾区发展规划纲要)'에 포함되어 홍콩, 선전, 마카오와 함께 문화예술지원 특화정책의 수혜를 받고 있다.

• 선전(深圳)

중국 광둥성에 있는 신흥 산업도시이다. 선전(深圳)이라는 지명은 15세기에 처음 등장하며 이 지역에 강과 호수가 많아 유래한 지명이다. 남송 시대에 무역도시로 성장하기 시작했으며 해안가 항구도시라는 지리적 이점으로 해상무역이 성행하였는데 명·청 시대에는 이러한 지리적 이점 때문에 군사적 요충지 역할을 하였다. 온난한 아열대 해양성 기후로 기온의 차가 적지만 습한 날씨이다. 사계절 꽃이 피고 주변 경관이 아름다워 관광산업도 주목받는다. 인구는 약 1천만 명이 거주하며 평균연령은 30세로, 중국의 미래를 가늠하는 신흥 산업도시로 각광받고 있다.

주요 교류기관 소개

• 대용당칠호창예술관

광저우 미술대학 도예과 교수가 운영하는 다원전시실과 창작공간으로 운영되며 중국예술연구원, 광둥성대학도예학술위원들이 참여하는 '국제 아시아 예술 축제' 등을 진행하고 있다.
광둥성대학도예학술위원회, 광저우미술대학 및 청화미술대학교, 중국예술연구원, 경덕진도자대학의 협력 및 회원사로 참여, 운영하고 있다.

• TNT Contemporary

세계 3대 유화 거리이자 중국 최대의 유화 도매시장인 다펀 유화 거리에 위치하였으며, 국내외 예술인들에게 창작공간과 전시 등을 제공하기 위해 2018년도에 설립된 단체이다. 지역 예술가를 출발점으로 다양한 국가와 지역의 문화예술 배경을 가진 예술가들 간의 이해, 통합, 나아가 충돌의 결과물을 대중들에게 선보이고자 한다.

프로그램 세부 내용

2022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국제교류전 '재생된 공간 수집된 관계' 담양군 담빛예술창고 ('22.10.8.~11.30.)	양국 작가의 작품 및 작품 데이터를 기반으로 디지털 프린트, 설치, 리터칭, 콜라주 등 다양한 기법을 가미하여 큐브형 전시, 설치미술형 전시 등을 구현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제교류 전시의 일면성을 제시하며, 참여국가 간 교류(전시)에 대한 해답을 연구
온라인 워크숍 ('22.11.15.~11.30.)	양 도시 공간 브랜드의 정체성과 확장성, 전시 진행 방법을 주제로 문화 프랜차이즈 설립과 공유 콘텐츠의 주제 선정과 방식에 대한 고찰
VR 전시 ('22.11.16.~)	데이터 개념 미술 작품 전시/작품 실제 촬영과 VR 촬영을 통한 가상전시관을 구축하여 양국 VR 전시 아카이브 사이트 노출 및 브랜드 홍보 자료로 활용 ▶ 접속링크 https://archive360.kr/archive360vr?vid=127272

메타버스 (‘22.11.22.~12.15.)	데이터 개념 미술 작품 전시/메타버스 플랫폼 활용을 통한 전시관 구축 및 전시 기간 내 안내 인원 상시 배치 ▶ 접속링크 https://url.kr/spq62z

성과

- 참여기관 간 공간 및 작가 교류 계획 수립
- 현지 협력기관과의 MOU 체결
-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공간문화예술 협약 계획 수립(도시재생사업)
  국내외 보도 건수(중국 3건/한국 34건)

참가자 통계

- 한국 측 참여작가: 24명/중국 측 참여작가: 27명
- 전시 관람자(오프라인 전시) 11,148명
- 워크숍(온라인 화상 세미나) 참가자 7명
  통역사 1명, 중국 전시 관계자 3명, 담양군문화재단 관계자 3명

후속 교류

- 한·중 국제교류전 예정(2023)
- 대용당칠호창예술관 및 TNT Contemporary Art space와의 양국 상호 작가 교류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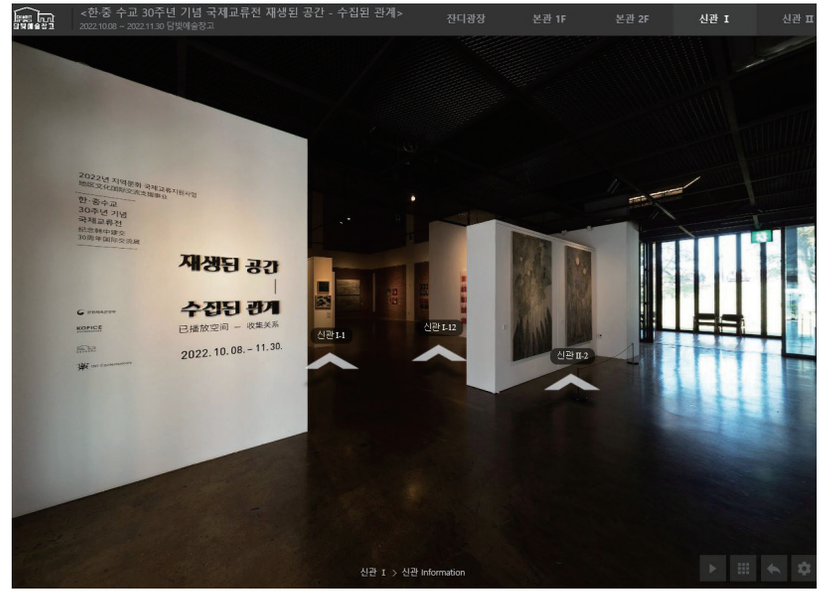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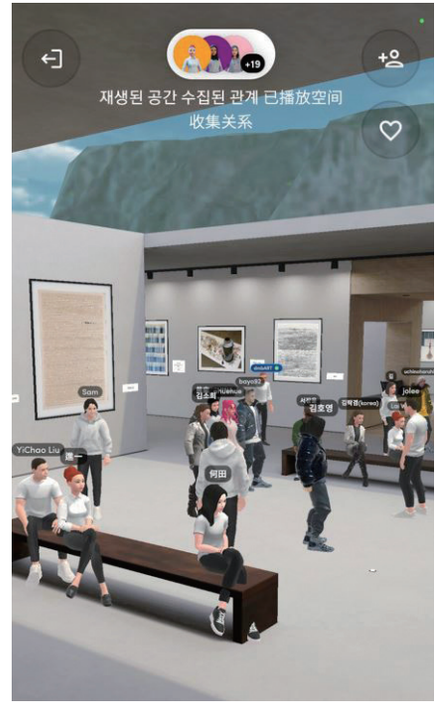
전시장 내부



전시장 외부



VR 전시 전경



메타버스 온라인 리셉션

㈔문화자원진흥원
[보령시 무형문화재 기반 베트남 한글 손글씨 (캘리그래피) 문화 확산]



베트남 캘리그래피 경연대회

2022년은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해이다. 한국과 베트남 국가 간 공통적 전통문화인 서예를 현대화한 캘리그래피를 통해 호치민 선생의 어록을 한글 손글씨로 써보는 한글 캘리그래피 창작 경연대회 및 워크숍을 실행하고, 수상작품을 서각으로 제작하여 충남 무형문화재인 보령 남포벼루와 함께 전시하는 등, 전통과 현대가 융합된 문화 이벤트를 추진하였다. 전시 작품은 베트남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하여 베트남 전국에 순회 전시되며 한글의 아름다움을 알렸고, 보령 남포벼루와 남포 서각을 베트남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사업 개요

사업명	보령시 무형문화재 기반 베트남 한글 손글씨(캘리그래피) 문화 확산
분야	경연(시각, 캘리그래피), 전시(시각, 공예), 워크숍(시각)
참여 지자체	충청남도 보령시
사업수행기관	㈔문화자원진흥원
교류지역	베트남 하노이
주요 교류기관	베트남문화유산협회(VCHA), 베트남 국립현대미술관(Vietnam Fine Arts Museum), 베트남 하노이 문묘

사업수행기관 소개

• ㈔문화자원진흥원

㈔문화자원진흥원은 2011년 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해 문화유산의 실용 가치 발굴 및 개발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와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다. '문화로 시작되는 일상의 행복과 미래의 희망'을 미션으로 삼고 있으며, 문화유산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문화자원을 통한 개발도상국 지원 및 인적자원 개발 지원, 디지털 활용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 자문 및 연구조사 등의 사업을 국내외에서 수행하고 있다.

교류지역 소개

• 베트남

우리나라 전통문화 중 서예는 동양권의 문화로, 한국의 문방사우 전통과 베트남의 문방사보(văn phòng tứ bảo, 文房四寶) 전통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2022년은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해로, 한국과 베트남 국가 간 전통문화의 공통점에 착안하여 호치민 선생의 어록을 한글 손글씨로 써보는 한글 캘리그래피 창작 경연대회 및 워크숍을 실행하고, 수상작품을 서각으로 제작하여 보령 남포벼루와 함께 전시하는 등, 전통과 현대가 융합된 문화 이벤트로 추진하고자 하였다.

주요 교류기관 소개

• 베트남문화유산협회

베트남문화유산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단체로, 1만 명 규모의 베트남 전국 문화유산 관련 전문가 조직이며 베트남 하노이에 본부가 있다. 회장은 Dr. Do Van Tru으로 장관급이다.

• 베트남 국립현대미술관

베트남 하노이의 바딘군에 있는 미술관으로 프랑스 식민지 시기 당시 공보부 청사로 사용되었다. 현대 작가의 그림, 조각, 칠기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베트남의 주요 예술 박물관이며 호치민시 미술관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크다.

• 베트남 하노이 문묘

베트남 하노이 문묘는 베트남 학문의 전당으로 불리는 명소다. 1076년에 베트남 최초의 대학이 문을 연 곳이기도 하며 1070년에 공자를 모시기 위해 설립된 역사적인 건물로, '공자묘'라고도 불린다. 안으로 들어서면 좌우에 거북 머리 대좌를 한 대형 비석이 있는데, 여기에는 1442년부터 약 300년간 시행한 관리 등용 시험에 합격한 이들의 명단이 새겨져 있다.

프로그램 세부 내용

캘리그래피 국내 경연대회 ('22.9.17.~9.18.)	- 베트남 결혼 이민자 및 한국 거주자 대상 캘리그래피 교실 - 베트남 출신 한글 손글씨(캘리그래피) 국내 경연대회 한국 거주 베트남인 22명 참석
베트남 캘리그래피 경연대회 준비 워크숍 ('22.9.22.~9.25.)	- 베트남문화유산협회와 〈보령시 무형문화재 기반 베트남 한글 손글씨 문화 확산〉 경연대회 공동 추진에 대한 MOU 체결 - 본 경연대회 보령시장 초대 및 푸토성 방문 회담 시 인민위원회 의장과 업무협약 추진 - 현지 참가자 프로모션 행사 및 활동 계획 수립 - 본 경연대회 장소 확정 및 참가자 접수 일정 협의
베트남 캘리그래피 경연대회 ('22.10.27.)	- 〈보령시 무형문화재 기반 베트남 한글 손글씨 문화 확산〉 베트남 한글 손글씨 경연대회 베트남 하노이 대학생 등 100여 명 참석

베트남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22.11.28.~11.30.)	-〈보령시 무형문화재 기반 베트남 한글 손글씨 문화 확산〉 베트남 한글 손글씨 경연대회 수상작, 서각작품, 남포벼루 전시회 및 기증식 -〈보령시 무형문화재 기반 베트남 한글 손글씨 문화 확산〉 전시작품 중 기증된 작품을 중앙 및 지방 각급 박물관에 대여하여 전국 순회 전시 예정

성과

- 〈보령시 무형문화재 기반 베트남 한글 손글씨 문화 확산〉 사업으로 호치민 어록을 통하여 베트남에 한글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전파하였다.
- 지역문화 국제교류를 통해 지방문화재인 보령시 남포벼루의 우수성과 보령서각을 베트남에 소개
- 베트남문화유산협회와 MOU 체결(2022.9.23.)

참가자 통계

- 행사 참가자 140명/경연대회 참가자 100명
- 전시 관람자 550명
- 워크숍 참가자 23명
- 베트남 관계자 50명, 한국 관계자 40명

후속 교류

-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와 후에(Hue)성 정부에 고도 후에성에서 응우옌 왕조 왕들의 시를 한글 캘리그래피로 쓰기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사)문화자원진흥원-베트남문화유산협회-후에성기념물유적보존센터 3자 간 MOU 체결 예정(2023.1.10.)
- 충남 보령시-베트남 푸토성 비엣찌시 간 지속적 교류를 위한 MOU 체결 예정(2023)



베트남문화유산협회와 MOU 체결



베트남국립현대미술관 전시





베트남 캘리그래피 경연대회





경연대회 수상작 및 우수작품 서각작품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치유와 연희(Healing Performance)]



버스킹 공연《직지와 왼손이》/ 델프트 광장

치유의 연희(Healing Performance)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국제교류 공연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과 네덜란드의 로컬 콘텐츠를 통하여 융복합 글로컬 콘텐츠 제작을 추진하였으며, 교류국가 협력기관과의 연계 협력으로 K-컬처 확산을 도모하고, 코로나로 지친 네덜란드 시민들에게 희망과 치유를 전하는 국제문화교류 사업이다.

사업 개요

사업명	치유의 연희(Healing Performance)
분야	공연(융복합), 워크숍(체험)
참여 지자체	충청북도 청주시
사업수행기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교류지역	네덜란드(로테르담, 헤이그, 델프트, 아인트호벤, 암스테르담)
주요 교류기관	헤이그 엠버시 페스티벌, 아인트호벤 폰티스대학, 로테르담 한글학교, 암스테르담 한글학교

사업수행기관 소개

•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은 민관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2001년 2월 22일 설립된 문화재단이다. 문화사업과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문화산업단지 관리운영 및 시설물 관리 등도 함께 하고 있다. 청주공예비엔날레, 청주문화재야행, 동부창고 운영사업 등 굵직한 사업을 다수 수행하는 등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문화예술과 콘텐츠산업의 융합 토대를 마련하는 지역의 문화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교류지역 소개

•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유럽 북서부에 위치하며 국토의 30%가 바다보다 낮다. 크기는 한반도의 20%밖에 되지 않지만 세계 5위의 무역 대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국토의 58%가 경작지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 농산물 수출 2위의 농업 강국이다. 정부형태는 내각책임제로, 의회 민주주의가 국가 기반을 이루고 있다. 네덜란드와 한국은 2021년 수교 60주년을 맞았으며 헤이그에서 열리는 엠버시 페스티벌(Embassy Festival) 공식 참여, 폰티스 대학에서의 워크숍, 네덜란드의 탈춤-EDM 컬래버레이션 등 청주와 네덜란드의 융합형 콘텐츠를 제작 및 교류해보고자 네덜란드를 방문하게 되었다.

주요 교류기관 소개

• 헤이그 엠버시 페스티벌

헤이그에서 열리는 대사관 축제로 매년 60개국 이상의 대사관이 참여하는 무료 페스티벌이다. 올해로 10년째 개최되고 있으며, 9월 2일~3일까지 진행되었다. 각 국가별로 부스를 만들어 음식, 의류, 공연, 전시 등 그 나라만의 전통문화를 보여주는 네덜란드의 지역 대표 축제다.

• 폰티스 대학

네덜란드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학으로, 전체 학생 44,000여 명 중 11%가 해외에서 온 학생들이다. 경영대, 공대, 예술대학으로 구성되어 있고, 200개의 학사 및 석사 과정이 있다.

• 로테르담 한글학교

1994년 개교한 로테르담 한글학교는 25명의 교직원과 150여 명의 학생들(재외동포, 외국인)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규과정과 어학당으로 나뉘어 총 20개의 학급이 운영되고 있다.

• 암스테르담 한글학교

1993년 개교한 암스테르담 한글학교는 20명의 교직원과 390여 명의 학생들(재외동포, 외국인)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글 과정, 네덜란드어 과정, 다문화·어린이반이 운영되고 있다.

프로그램 세부 내용

일정 및 프로그램	**'22.9.3.** · 장소: 로테르담 한글학교 / 엠버시 페스티벌 · 프로그램: 《직지와 왼손이》, 《생명의 물 초정약수》, 연희향연 탈춤, 사물놀이, 판소리, 탈 스템핑 등 엠버시 페스티벌 거리 퍼레이드 참가 **'22.9.6.** · 장소: 폰티스 대학 EDM 컬래버레이션 워크숍 · 프로그램: 탈춤·EDM 프리스타일 진행 **'22.9.7.** · 장소: 델프트 광장 및 점포 거리 버스킹 공연 · 프로그램: 《직지와 왼손이》, 《생명의 물 초정약수》, 사물놀이 **'22.9.9.** · 장소: 폰티스 대학 인스퍼레이셔널 워크숍(Inspirational Workshop) · 프로그램: EDM 컬래버레이션 공연, 연희향연 탈춤 배우기

	‘22.9.10. · 장소: 암스테르담 한글학교 · 프로그램: 《직지와 왼손이》, 《생명의 물 초정약수》, 연희향연 탈춤, 사물놀이, 판소리, 탈 스탬핑 등
《직지와 왼손이》	청주 직지심체요절과 호랭이의 만남, 그리고 지네 사또에게 잡힌 쌈지 할머니를 구하기 위해 호랭이를 찾아가는 외톨이 왼손이의 모험 이야기를 다룬 공연. 서로 다름을 이해하는 문화 다양성과 공연을 통한 양국의 동질성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생명의 물 초정약수》	청주시의 문화원형인 ‘초정약수’를 소재로 콘텐츠를 통한 힐링과 상생의 문화 백신 역할을 하는 공연. 청주 지역의 고유 소재인 초정약수를 해외에 알릴 수 있는 공연이기도 하다.
탈춤-EDM 컬래버레이션	한국의 전통과 네덜란드의 새로운 음악에 맞추어 보는 구·신과 동서양의 융합형 콘텐츠로서, 네덜란드 EDM DJ의 신나는 음악에 맞추어 프리스타일 탈춤을 시도하였다.
기타 체험 프로그램	꼭두광대 연희향연 탈춤, 사물놀이, 탈 스탬핑, 전래놀이, 강강술래 등

성과

- 코로나19로 위축된 국제문화교류 공연 콘텐츠를 진행하여, 해외 공연문화 교류에 대한 갈증 해소
- 한국 탈춤-네덜란드 EDM의 새로운 융합형 공연을 제작해보는 실험적 시도
- 단순 프로그램 전달 방식이 아닌 해외 기관들과의 문화적 교류를 매개하는 방식으로 진행
- 지속적인 대사관과의 소통으로 헤이그 2022 엠버시 페스티벌 공식 참가

참가자 통계

- 로테르담 한글학교 150명
- 헤이그 엠버시 페스티벌 10,000명
- 델프트 광장 2,000명
- 아인트호벤 폰티스 대학 50명
- 암스테르담 한글학교 300명

후속 교류

- 2023 헤이그 엠버시 페스티벌 공식 초청 협의 추진
- 폰티스 대학 외 다른 학부 및 학과와 연계하여 문화교류 협의 진행
- 2023 청주공예비엔날레·2023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사업 연계 방향성 모색
- 주네덜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연계 문화교류 행사 협의



공연 프로그램 진행《생명의 물 초정약수》 / 로테르담 한글학교



공연 및 퍼레이드《생명의 물 초정약수》 / 헤이그 엠버시 페스티벌





폰티스 대학 인스퍼레이셔널 워크숍(탈춤·EDM 컬래버레이션) / 폰티스 대학





체험프로그램 워크숍 및 시연 진행 / 암스테르담 한글학교

㈔세계무술연맹 [대한민국-우즈베키스탄 수교 30주년 기념 지역 무형문화유산 교류]



택견 세미나 및 강습회(누라프샨시 체육학교)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일대에서 8월 29일부터 일주일간 열린 '타슈켄트 무형문화유산주간' 행사는 양국의 무형문화유산을 콘텐츠로 합동공연, 워크숍, 사진 전시회, 다큐멘터리 제작 등이 진행되었다. 충주의 무형문화유산이자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인 택견과 충주의 악성 우륵의 이름을 딴 우륵국악단, 우즈베키스탄의 전통 무술 장사나티와 전통음악이자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인 샤쉬마콤 간의 교류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양국 참여단체 간 실질적인 현지 네트워크 및 파트너 구축에도 기여하였다. 알리셰르 나보이 극장 500석이 모두 찰 정도로 많은 타슈켄트 시민들이 공연을 관람하였으며, 택견 강습회의 참가자들 역시 높은 만족도를 표했다.

사업 개요

사업명	대한민국-우즈베키스탄 수교 30주년 기념 지역 무형문화유산 교류
분야	공연(합동공연), 전시(무형유산), 워크숍(음악, 무술), 강습회(무술)
참여 지자체	충청북도 충주시
사업수행기관	사단법인 세계무술연맹
교류지역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주요 교류기관	우즈벡 장사나티 연맹, 국립 소그디아나 오케스트라

사업수행기관 소개

• ㈔세계무술연맹

2002년 설립된 사단법인 세계무술연맹은 현재 47개국 70개 회원단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제적 규모의 무술 축제, 쌍방향 교류 등 국제적 행사를 조직하고 지원해왔다.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문화로서의 무술 교류를 넘어 음악과 무술의 문화교류를 추진하여 양국의 무형문화유산 전문가들이 함께 합동공연을 만들고, 워크숍을 통해 교류의 기반을 만들었다.

교류지역 소개

•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고려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나라로, 2018년 한국택견협회, 충주시, 우즈벡무술연맹, 페르가나주 4개 기관 및 단체 간 상호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양 지역 무형문화유산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세계화를 도모하면서, 3세대 고려인에게 한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지역이다. 양국 수교 30주년을 기념하여 무예 교류를 넘어 문화교류로 확대, 발전시키고자 한다.

주요 교류기관 소개

• 우즈벡장사나티연맹

우즈벡 스포츠부 소속으로 산하 지부를 포함하여 약 1,000명 정도의 선수 및 수련자가 소속되어 있다. 장사나티는 우즈벡의 국가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도 추진하고 있다.

• 우즈벡 국립 소그디아나 오케스트라

1991년에 설립되어 국제음악축제 대상을 포함하여 여러 국제적 행사에서 수상했으며, 13개의 앨범을 제작하고 다수의 다큐멘터리와 영화음악에 참여하였다.

프로그램 세부 내용

무형문화유산 합동공연 및 사진 전시회 (‘22.8.30.~9.1.)	참여단체별 공연, 충주의 우륵국악단과 우즈벡의 소그디아나 오케스트라의 합동공연(오나라, 아리랑), 우륵국악단과 한국택견협회의 합동공연
지속가능발전 워크숍 및 MOU 체결 (‘22.8.31.)	양국 전통악기 소개 및 시연, 체험 연주, 《오징어 게임》 OST 즉석 협연, 양국 무예 소개 및 체험, 무술 동작으로 구성된 공연 등
택견 세미나 및 강습회 (‘22.9.1.)	장사나티 수련생 대상 택견의 기본동작 강습, 2인 1조 대련 수련, 놀이 수련 및 1:1 코칭
무형문화유산 사진 전시회 (‘22.9.2.)	호텔 우즈베키스탄 로비에 충주의 지역 무형문화유산 사진 30점 전시
다큐멘터리 제작 (‘22.7.~11.)	사업 준비과정부터 행사까지, 전 과정 촬영 및 다큐멘터리로 제작

성과

- 현지 네트워크 마련을 통한 상호교류 기반 구축 및 우호협력관계 강화
- 양국 전통음악(아리랑, 오피스타) 합동공연을 통해 양국 문화교류의 장을 만듦.
- 택견 세계화의 초석을 놓기 위한 우즈베키스탄의 기반 점검 및 현지 수련 인구 증대를 위해 프로그램 방향 설정
- 한국택견협회-우즈벡장사니티연맹-국제장사나티협회 MOU 체결(2022.9.1.)

• 세계무술연맹-우즈벡장사니티연맹-우즈벡국립민족스포츠협회 MOU 체결(2022.9.1.)

참가자 통계

• 합동공연 관람객 950명, 전시 관람자 2,000명
• 워크숍 참가자 60명, 강습회 참가자 50명
• 주우즈벡 대한민국대사관 3명 참석

후속 교류

• 2022 국제연무대회 장사나티 수련생 30명 참여 및 장사나티 무술공연 시연(2022.11)
• 우륵문화제 초청 공연 및 합동공연 추진(2023)
• 세계택견대회 등 상호 행사 초청 및 참여 예정(2023)



우륵국악단과 소그디아나 오케스트라의 합동공연(알리셰르나보이 대극장)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워크숍(호텔 우즈베키스탄)



MOU 체결(우즈베키스탄 스포츠부)



누라프샨 시장 면담(누라프샨시 임시 관사)



택견 세미나 및 강습회(누라프샨시 체육학교)



무형문화유산 합동공연(누라프샨시 청소년센터)

국제문화교류 기획지원

70 전북 순창 | 미국
극단 녹두 [창작 뮤지컬《오버 더 레인보우》]

극단 녹두
[창작뮤지컬《오버 더 레인보우》]



극단 녹두

창작 뮤지컬《오버 더 레인보우》공연은 2023년 지역문화 국제교류를 위한 2022년 지역문화 국제교류 기획지원 사업으로서 2022년 11월 21일 순창 향토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또한 2023년 순창 청소년 연극단 뮤지컬《오버 더 레인보우》의 지역문화 국제교류 추진 사업을 위한 사업 설명회도 진행되었다.

이 사업은 순창 청소년 연극단과 미국 LA 스칼라 심포니 오케스트라 (SCALA Symphony Orchestra) 주니어 팀과의 뮤지컬《오버 더 레인보우》협업 공연 및 국제교류를 통한 네트워킹 확대를 목표로 진행하게 되었다.

2022년 사전 네트워킹 사업과 함께 뮤지컬 음악·대본 공유 및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준비 작업이 진행 중이며, 미국 LA 스칼라 주니어 심포니 오케스트라 지휘자 박윤재 님의 방한으로 사업 전반에 대한 회의 진행 및 협업 공연을 목표로 양국의 단체들이 적극 협조하기로 의견을 나누었다. 국제문화교류를 진행했던 단체의 자문도 진행 중이다.

순창 청소년들의 국제문화 교류가 다양한 문화의 경험과 사고의 확대, 진로 선택의 폭을 넓혀줄 것을 기대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적 교류로 타 문화에 대한 이해와 글로벌 시대에 맞는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사업수행기관 소개

• 극단 녹두

서울의 대학로에서 30여 년간 다양한 연극 무대에서 배우로 활동해왔으며, 오랜 예술교육 경험을 지니고 영화·연극 제작 등을 왕성하게 해오고 있는 배우 지미리(본명 김미경)는 2019년 8월 6일, 순창군에서 유명 예술인들과 합심하여 극단 녹두를 출범시켰다.

극단 녹두는 순창군에서 접하기 힘든 정극《만선》을 향토회관에서 공연하고, 2020년에는 순창 청소년 연극단의 창작 뮤지컬《그럼에도 불구하고》(3.20 만세 운동-2020.12.1.일 공연)를 기획, 연출하였다.

본 극단은 앞으로 전북 지역과 순창군의 연극에 관심 있는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극단이 되고자 한다. 전북의 예술(연극) 분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전북민과 함께하는 정극을 통하여 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며, 젊은 예술인을 육성하여 연극의 기대효과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연극을 교육 프로그램과 접목시켜, 연극의 교육적 힘을 십분 발휘하도록 연구와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주요 교류기관 소개

• 스칼라심포니오케스트라(SCALA Symphony Orchestra)

스칼라심포니오케스트라는 비영리 단체로서, 현 바이올리니스트이자 플러튼대학교 교수인 박윤재 대표 및 소리엘뮤직아카데미의 타미주 감독이 이끌고 있다. 이들은 L.A 신포니에타 봄 콘서트(2018) 아르헨티나 공연에 초대받고 디즈니 홀에서 모금공연을 했으며 지역사회를 위해 연중 정기공연을 하는 등 예술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다수의 병원 위문공연, 노인층의 악기 교육 등 음악으로써 다양한 사회 소외계층 및 지역사회를 위한 자선활동을 하고 있으며, 음악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 기여하고 봉사하는 단체로서 전문 연주자들을 발굴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공연을 열기도 했다. 우수한 연주자들을 통해 사회에 건강한 활력을 불어넣고, 음악교육을 진행하면서 악기가 필요한 학생들의 악기 구입을 돕는 등 예술적 동기부여에 힘쓰고 있다.

사전 네트워킹 프로그램 세부내용

창작 뮤지컬《오버 더 레인보우》('22.11.21.)	순창 특유의 로컬 산업인 발효산업 씨간장의 우수성을 모티브로 하여 그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판타지 모험극 창작 뮤지컬《오버 더 레인보우》공연을 완성시켰다. 특히 작품의 수준을 한층 더 올려줄 탭댄스 안무를 결합했다.
온라인 도시 투어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한 전국 투어

2023년 추진 계획

사업명	2023년 한미 청소년 창작 뮤지컬《오버 더 레인보우》협연
분야	공연
참여 지자체	순창군
사업수행기관	극단 녹두
교류지역	미국 LA
주요 교류기관	LA 스칼라 심포니 오케스트라
프로그램	• 교류 내용: 순창 청소년 연극단과 LA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협업 공연 • 프로그램 1) 양 지역 문화예술기관 간 협력 관계 제도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2) 뮤지컬《오버 더 레인보우》공연 3) 양 지역 워크숍 진행 4) LA 청소년 오케스트라 순창(전북) 초청 5) LA와 순창(전북) 교류 공연(LA 지퍼 홀)

사업계획 발전 성과

- 기존 한 방향 교류
- 한시적 교류
- 기존 지역 예술문화 콘텐츠 범위 제한적

→

- 양방향 교류로 확대 진행
- 지속적 교류 노력
- 기존 지역 예술문화 범위 확대



창작 뮤지컬《오버 더 레인보우》공연 포스터



공연 후 기념사진


10 2022년 11월 23일 수요일 (제892호) 특 집 열린순창

청소년연극단 창작 뮤지컬 "오버 더 레인보우"

순창 청소년연극단의 창작 뮤지컬 "오버 더 레인보우"가 지난 21일 향토회관에서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 오후 3시와 6시 2회 선보인 공연은 극단 녹두(대표 지미리)가 기획·연출하고 청소년연극단 30명이 참여해 지역의 대표 탭댄스 연무를 선보이며 공동체 정신 문화를 소개, 한 관중의 대표는 "관객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했다. 청소년연극단 30명은 지난해 11월까지 매주 1회 이상의 노래와 연무, 탭댄스 등을 출석하며 연습해 공연을 준비했다.

순창 초·중·고 청소년연극단

순창군과 순창교육청, 지역의 문화예술단이 함께 협력하여 순창군 청소년들이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꿈과 사회성 청소년연극단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순창의 초·중·고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청소년연극단은 극단 녹두의 지미리 대표가 기획·연출한 공연으로 관객들과 소통하고 있다.

지미리 대표는 소감을 전했다.

"아이들을 만나 연기 인생 주변은 예 선생님의 관람만을 염두했었고, 선생님은 사서 아이들에게 연기를 가르치는 것도 혼자서만 아이들이 무대에 오르기까지 연습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에 노력의 소중함, 사회 등고 배우며 배운 유는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역할가짐과 자세 필요한 것도 알아요. 작품에 서는 관람을 통해 서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얻고 더 많은 점을 주고 좋은 추억을 많이 선물해 연 줄 줄겠어요."

지 대표는 "순창에 예능없고 상력 없는 아이들이 많아요. 서울에든 오는 게 아니니까요. 아이들이 가진 재능을 표출할 곳이 없어서 그렇지, 재능 있는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가진 끼와 재능을 맘껏 발휘할 수 있게 해 교 싶어요. 이것도 교육 아니겠습니까? 리고 넘으로의 바람을 이야기했다.

함께한 노력, 관객에게 감동

공연에 참나며 청소년연극단원의 친구와 가족,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 로 준중가 했는데요라는 커뮤 세했다. 댄 가해를 남도 될수 있은 시간 참여 감이들 준비하며 함 즐선 학생들의 노력과 관객에게 감동으로 전달되는 순간이었다. 관객들은 누구랄 것도 없이 청소년연극단 배우분과 커뮤니 전 활영을 하고 고생한 배우들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격려하고 응원했다. 행정(화)은 사람들이 나누는 순간한 것으로 가득 찼다.

이에도 신우 어떻비 화목인에도 3 학생은 "어렵에 처음 참여해서 너 었는데 힘, 누니, 공감등과 연습하면서 좋은 추억 많이 지어가서 행복하다"며 "함께는, 노래, 연무 등을 전문 선생님들께 배운 건 모지 못할 좋은 경험"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위격 연기를 선보인 김성현이에도 3 학생은 인격감을 드러냈다.

"무지함을 경험 좋아하게 됐는데 도 공연을 무주 보면 다음도 주변 사람들을 환경게 해주는 것을 좋아해 서 연극학에 대니 됐나 때도 사람들 보은 행보는데 좋아하는 무지함 공연을 통해 친구들과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이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기쁘다 나무 좋아요."

초급 더 좋은 연습환경 마련했으면

전하랑 학생은 "연극 공부를 하면서 너무 많은 배움을 얻었다.

"초급 더 좋은 연습환경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어요. 연습 장소가 매초 마련되지 않아 넓 자에 매하는 일도 있었는데 그럴 때에도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무지함에 참여한 시간 중에 정말 재밌었고 꼭 있는 시간들이 많아요. 최소한의 환경이 마련돼서 조금 더 좋은 연습공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2022 순창군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 일시 : 2022. 12. 9.(금) 10:00~17:00 (기념식 11시) ■ 장소 : 순창군 장애인체육관

《열린 순창》신문 기사

국제문화교류 자문단 특별기고

78 홍유정 지역문화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철학
: 다시 열린 글로벌, 지금부터가 진짜 경쟁

81 김상미 예술 로컬리즘

84 박다솔 지역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제언
: 먼 곳에서, 가장 가까운 마음으로

88 김성일 BIAF 국제 네트워크, 그 우연과 만남의 순간들
-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로 보는 지역 기반 축제의 해외네트워크 구축 전략

지역문화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철학
: 다시 열린 글로벌, 지금부터가 진짜 경쟁

홍유정 | ㈜하스카/기획자의 집 대표

지난 연말에 한 지역사업 보고회장에서 있었던 일이다. 지역 관계자, 로컬 크리에이터, 지역 미디어 측, 지역문화 연구자 등 네댓 명이 열린 토론을 하는데 내게 이런 질문이 던져졌다.

"작은 동네에 다양한 로컬 플레이어들이 생겨나면서 나타나는 문제인데요. 시기, 질투나 경쟁 구도가 점점 심해져요. 이런 일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번 겨울은 지역에게 유난히 더 싸늘하다. 해외여행이 재개되면서 연말 연초 성수기 시즌의 지역 유입이 확연히 줄어들었다. 지역에서 숙박업을 하고 있는 지인에 따르면, 성수기 기대 숙박률을 한참 밑도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반면에 빗장이 열린 일본 여행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린다고 하는데, 도쿄는 어디를 가나 한국 사람이 많다고 느껴질 정도라고 한다. 올해의 휴가지를 계획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해외를 낙점하고 있다고 하니, 지역 경기가 일찌감치 얼어붙는 게 당연하다. 지난 몇 년간 국경이 닫히며 국내로 불었던 기회의 순풍이 풍향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각종 경제 위기설까지 겹치니, 지역에 과연 봄다운 봄이 올 것인지 걱정스럽다.

한편, 발 빠르게 자구책을 찾아내는 움직임들도 있다. 로컬의 일들을 세상에 알릴 필요가 있다며 함께 연결될 수 있는 협력적 모델을 만들고, 기존 생태계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미래지향적 커뮤니티로 발족한 '로컬브랜드포럼(LBF)', 로컬 임팩트 생태계 내의 구성원들이 최다 참여하는 네트워킹 행사 '로컬다이브'를 비롯해 크고 작은 연대가 일어나는 중이다. 지역문화를 만들고 있는 전문 기획자, 예술인, 기관 담당자들의 달라진 시선도 확연히 느껴진다. 왜 내가, 왜 지금, 왜 여기서인지를 잘 이해하고 만드는 우수한 콘텐츠들이 지역 방문의 이유를 만들어내고 있다. 눈에 띄는 지역의 콘텐츠에는 어느새 좋은 인재들이 스며들어 역량을 발휘하는 모습도 종종 눈에 띈다. 말 많던 '고향사랑기부제'도 어찌 되었든 시작되었고, 더 세분화된 지역 정책사업들도 해마다 늘고 있으니 마냥 허허벌판은 아니라 하겠다.

글의 첫 시작으로 다시 돌아가, 연말에 화두처럼 받았던 질문에 내가 어떤 답을 했을까. "요즘 많은 사람들은 가볼 만한 곳이라면 내비게이션에 주소나 이름을 찍고 깊은 산골까지 찾아간다. 그들에게 지금 필요하고, 만나고 싶은 콘텐츠가 거기 있기 때문이다.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비법은 무엇일까. 다른 곳에는 없는 유일한 무언가를 잉태해내는 것, 즉 마케팅에서 말하는 USP(Unique Selling Point)라는 차별화된 요소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런 요소가 나만의 스타일, 독보성, 경쟁력이 되고 매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역 내에서 경쟁 구도를 이기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밖으로 향했던 시선을 안으로 돌려 나만의 매력을 더 공고히 하는 일이다. 더 매력적인 무언가가 되어보라. 그것이 지역 내의 경쟁적 시선을 넘어 글로벌까지 관통하는 경쟁력이며 생존전략이다."

이런 나의 답변은 질문자가 듣고 싶었던 얘기가 아니었는지,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야기는 '지역 내 상호 구매와 상생' 등과 같은 주제로 흘러갔다. 물론 일리가 있는 얘기들이다. 허나 보다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지역문화를 만드는 방편은 아니라고 본다.

그런데 우리 지역문화로 유니크한 경쟁력을 만드는 방법이란 것이 쉽지 않다. 오랜 경력의 기획자에게도 늘 만만찮은 숙제이다. 혹자들은 늘 새로운 것, 전에 없던 어떤 아이디어를 원하기도 하지만 그게 답일까. 얼마 전 로컬 기획자들과도 이런 얘기를 나누다, 'The new'의 반대말은 'The old'가 아니라 'Not old but same'이라며 공감했다. 지금 우리는 다음 위기를 이겨낼 그 한 끗 차이를 만들어야 한다. 일상에서 오갔던 작은 하천이 지역정서의 소박한 멋을 더해주는 문화 여정의 도보길이 될 수 있고, 늘상 상에 오르던 어머니의

소박한 반찬이 누군가에게는 그리운 정을 불러내는 상품이 되기도 한다. 또 골목길에 버려지던 현수막이 어떤 이에게는 독특한 한복감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우리는 평범한 것들에서 섬세한 발견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 외부의 시기, 질투에 시선 돌릴 새가 어디 있겠나. 내 콘텐츠로, 나의 비즈니스로 더 집중해야만 한다.

옛 페르시아의 신비주의자이자 법학자였던 루미의 시에 이런 구절이 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다지만, 물도 목마른 사람을 찾는다오."
새로운 콘텐츠를 찾는 국내외 다양한 콘텐츠 수용자들이 목마른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솟아나는 달콤한 샘물이 되어야 한다. 필요와 충분이 서로를 간절히 원한다는 긍정적인 비전을 가져야 한다. 지역은 다시 힘을 내어 봄을 힘껏 끌어당겨보자. 지속가능한 다음 계절들이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홍 유 정

뉴미디어 마케팅 분야에서 20년째 활동해온 커뮤니케이션 스페셜리스트. 여러 지역에서 로컬브랜드 및 로컬문화 프로젝트를 디렉팅하고 또 교육하고 있다. 현재 로컬브랜드포럼(LBF) 이사이자 지역문화 연구그룹 〈클럽.모더놀로지〉의 수석 연구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예술 로컬리즘

김상미 | ㈜블루버드씨 대표

'30년 후, 전국의 47% 지역이 사라진다.'
'지방 소멸'. 한국고용정보원이 2022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13곳(49.6%)이 지방 소멸 위험지역이라고 한다. 113곳의 지방 소멸 위험지역 중 소멸 고위험 지역은 45곳으로, 2015년에는 3곳이었으나 불과 7년여 만에 42곳이 늘어난 것이다.
이 수치를 시각화하면 상당히 위협적으로 다가온다. 빈집만이 덩그러니 모여 있는 어느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른다.
그러나 또 다른 현상을 찾아보면, '개성 중시 MZ세대, 로컬브랜드 열광'이라는 사뭇 상반돼 보이는 이슈를 확인할 수 있다.

'지역소멸'과 '로컬브랜드 열광'이라는 이 두 가지 현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사업'의 본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각 지역이 보유한 우수한 유·무형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콘텐츠의 가치 확산'이라는 명제를 통해 이 두 가지 현상을 재해석해볼 수 있지 않을까?

지역 소멸과 관련하여 많은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로컬 지향의 흐름을 지역 활력과 연계하는 것은 단순히 인구 유입, 개발사업 유치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구조와 다자간 교류·협력으로 상생과 공존의 사회문화 확산이 병행되어야 한다. 문화예술만큼 이런 활력과 공존의 바이브를 잘 포용하고 이어줄 수 있는 훌륭한 매개체가 또 있을까?

경영전략의 대가 야마구치 슈는 최근 어느 인터뷰에서 '지금 시대가 가야 할 길'에 관한 질문에, "예술가들은 그들 나름의 시점에서 발견한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문제'를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제기하고, 때에 따라선 해결하려고 한다. 비즈니스의 본의를 '사회 문제의 발견과 해결'이라고 정의한다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예술가들이 하는 일과 같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로컬브랜드 시대의 개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MZ세대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질과 환경 가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확산, SNS와 다양한 기술 발전을 활용한 기반사업의 확장이 이를 가속화하고 있는 지금은 **지역 기반 예술단체들의 지역에 대한 새로운 가치 발견과 창의성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시기이다.**

다만 이를 위해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다자간 교류 협력의 방식이다. 관련 사업에 진입하는 지역 예술단체의 큰 고민 중 하나가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물론 이런 보완을 위해 해당 사업 내에서도 추진지원과 기획지원 형태의 분야별 전문 자문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지역의 인력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자생적 움직임에서 비롯된다.

지역전문가 육성과 연대 형성, 다양한 단위의 협력구조를 위한 밀도 있는 방법론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최근 출범한 로컬브랜드포럼의 연대방식도 참고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들은 지속할 수 있는 로컬 생태계를 목적으로 100여 개의 스타트업이 모여, 지역의 인적 인프라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소하고 있다. 좋은 인적 풀과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협업과 연대를 통해 지역 간 경계를 허무는 동반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로컬 기반 공통의 관심사와 고민의 지점을 상호학습과 연대를 통해 풀어낼 수 있는 점은 지역뿐 아니라 국제교류의 방식에도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하는 방식의 재구성과 협력 층위의 다양화를 위한 실험도 필요하다. 특히나 소수인 국제문화교류 인력의 안정적인 협력구조를 위한 비대면 방식의 업무확장도 고려할 수 있다. 다분야의 전문가 레지던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지역의 입체적 관점을 모으는 토대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한 업무 히스토리 유지, 구조의 체계화 및 대면/비대면 업무의 보완점 역시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연대의 다양성에 대한 고민은 기존의 콘텐츠 중심의 국제교류뿐 아니라, 더 긴밀한 형태의 문화교류의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새로운 질문을 통한 로컬리즘의 시작은 로컬 프렌들리 저변의 확대에서 발현되지 않을까?** 전국 228개 지방자치의 고유하고 독특한 228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펼쳐지기를 응원한다.

김 상 미

문화예술후원매개 전문기업 ㈜블루버드씨 대표이사. 연극을 시작으로 축제와 민간 프로덕션에서 제작피디로 작업하였으며, 시대적 화두를 반영한 다양한 국제 공동창작과 국제교류 작업을 진행해왔다. 현재는 '아트솔루션(Art Solution)'을 축으로 예술의 창의성을 통해 공공의 문제해결 방법론을 모색하는 판을 만드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지역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제언
: 먼 곳에서, 가장 가까운 마음으로

박다솔 | 공연예술 평론가

전 세계적인 감염병의 여파로 지난 3년간 국가 간 직접적인 문화예술 교류가 중단되는 초유의 시간을 지나왔다. 다행히 2022년 여름부터 국제 항공 노선이 서서히 재개되며 자연스레 국제 문화예술 네트워킹도 적극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 물론, 이동이 제한되던 때에도 국제 네트워크가 완전히 끊긴 것은 아니었다. 국내외에서 온라인으로 워크숍이나 포럼, 라운드테이블 등을 기획하고,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국제 네트워킹을 더욱 긴밀하게 만들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에게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거나 중단되는 상황, 혹은 여러 제약으로 인해 빈번한 물리적 교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문화예술교류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제시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다수의 예술가와 기획자들이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네트워크를 이어간 이유는, 국제문화교류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교류 대상과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관계 구축과 상호 간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의 국제 네트워킹 경험은 상호 수시 방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대안적이고 새로운 유형의 교류 방식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대안은 지역에서의 국제교류 시에도 십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에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국제교류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국내 지역의 국제문화교류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공연예술 장르의 경우 교류 국가에 방문해 공연이나 전시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더 나아가 방문 국가의 문화 콘텐츠를 관람하거나 한두 번 경험해보는 식이다. 기관이나 도시 간에 MOU를 체결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형식적인 교류를 수행하며 행정 실적의 수단으로 그치는 사례도 종종 접하게 된다. 이는 국제문화교류에 배정된 예산이 수도권에 비해 충분하지 않거나 국제교류의 경험이 적고, 혹은 이를 적절히 기획 및 운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행정가의 부재가 결정적인 원인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에 앞서 근본적으로 국제문화교류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질문해야 할 것 같다.

지역의 고유성이 담긴 콘텐츠 개발

지역성이 드러나는 콘텐츠가 국제문화교류에서 유효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콘텐츠가 지역 내에서 인정과 신임을 받는 것이라야 한다. 지역민을 매료시키고 설득한 콘텐츠는 지역의 보편적인 문화로 자리 잡고, 스스로 보다 확산되고 확장할 수 있게 된다. 유·무형의 문화유산, 지역을 대표하는 스포츠나 특정 예술 장르, 지역이 낳은 스타 등 지역을 대표하거나 지역의 고유성이 강조된 문화예술 콘텐츠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은 이미 보편화된 지역문화 개발의 방식 중 하나이고, 전국의 지자체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으로 확산된 문화는 곧 자생력을 갖추게 된다. 국제문화교류 프로젝트를 거시적 관점으로 기획할 수 있는가는 해당 콘텐츠가 얼마나 많은 진화 가능성,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와 관계된 질문이다. 따라서 지역에 확산하지 않았거나 신뢰를 얻지 못한 콘텐츠는 당연히 자생력을 갖출 수도, 진화 가능성을 크게 점칠 수도 없게 되는 것이다. 달리 말해, 국제문화교류를 꾀하는 콘텐츠는 우선적으로 해당 지역과 활발하게 교류되고 있어야 한다는 말과도 같다.

지역의 문화 콘텐츠는 관광 산업과도 직결되며, 해당 콘텐츠 개발로 인해 결과적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으리라는 지역민들의 바람이 투영된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지역의 콘텐츠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지역에 머물며 외부 인력이나 자본, 관광객을 해당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 지역 문화유산이 희소하거나 지역색이 강하지 않은 문화를 소유하고 있다면, 예술인과 협력해 문화예술지구를 형성하거나 특정 단체 및 장르를 적극 지원해 상징성을 획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프랑스

브르타뉴 지방에 위치한 도시 낭트는 다른 관광 도시들에 비해 크게 특색이 없는 도시였다. 그러나 낭트에 정착한 거대 인형극 단체인 로얄 드 룩스(Royal de luxe)가 도시 내에 거대 목조 인형을 설치하면서 이 인형은 점차 지역의 상징으로 거듭났고, 관광산업에 일조했다. 프랑스의 남부 소도시에 불과했던 아비뇽이나 영국의 에든버러도 유사한 방식으로 지역 콘텐츠를 공고히 한 사례다.

일방적 전파가 아닌 쌍방향 교류로

지역 국제문화교류 사업들을 살펴보다 보면, 대부분 교류가 아닌 일방적인 문화 전파 프로그램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된다. 앞서 언급한 공연이나 전시가 해당 유형에 속하는데, 공연 프로그램 자체가 교류 지역이나 국가와 크게 관계가 없는 경우도 많다. 이는 해당 콘텐츠가 방문 지역에서 공연·전시된 것 자체를 국제문화교류의 수행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발생한 오류다.

지역 간 교류의 기본 전제는 상호 간 문화 이해와 문화 교류(exchange, 교환)에 있다. 지역의 고유한 콘텐츠를 교류 지역에 접목시켜보거나, 교류 지역의 예술가와 협동하거나, 혹은 교류 지역의 지역민들과 협업을 이루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예를 들어, 현대 무용 안무가였던 피나 바우시는 도시·지역 시리즈를 기획해 무용단을 이끌고 특정 도시로 가 몇 달간 체류하며 자신들이 해당 도시에서 발견한 것들로 공연을 만들어 전 세계를 투어했고, 연극 단체인 리미니 프로토콜의 '리모트 시리즈'의 경우 정형화된 형식에 방문 도시마다의 특색을 반영해 시민 예술가들과 공연을 재구성하는 식으로 변형에 변형을 거듭한다. 지역의 콘텐츠가 지역민에 의해 자기화되고 이를 변형 및 발전시켜야 하는 것처럼, 해당 콘텐츠가 다른 문화를 지닌 지역에서 어떤 새로운 것을 생산해내는지, 그것이 이뤄내는 변형으로 또 어떤 가능성을 꿈꿔볼 수 있는지 거듭 시도하고 실험해야 하는 것이다.

먼 곳에서, 가장 가까운 마음으로

언어의 장벽과 물리적 이동의 제약 등으로 교류기관 및 지역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늘 신속하고 유연하게 이뤄질 수는 없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우리는 다양한 유틸리티를 활용해 어디서든 만날 수 있고, 어떻게든 직·간접적으로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 그것은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받으려는 절실함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할 테다. 지역의 국제문화교류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절실함이다. 교류의 가장 기본은 커뮤니케이션이다. 지역 내 커뮤니케이션과 지역 간 커뮤니케이션이 상호 간에 마음의 거리를 가장 가깝게 두고 일어나야 한다. 참담했던 시기를 지나, 국제교류가 다시금 활발해지고 있다. 지역은 어떻게 만나고 확장될 것인가? 새롭게 질문해야 할 때이다.

박 다 솔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경영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리옹 2대학에서 공연예술학 석사를 마쳤다. 극단, 극장, 축제에서 기획자로 일한 바 있고, 2013년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에서 '젊은비평가상' 가작을 수상한 뒤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다. 《춤과 사람들》, 《한국연극》에 5년간 프랑스 특파원으로 글을 기고했고, 그 외 다양한 매체에 평문을 싣고 있다. 연극, 무용, 서커스, 거리예술에서 비평, 드라마투르기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무용 전문매체 《춤in》의 편집위원이었고, 번역작으로는 연극 《온 더 비트》가 있다.

BIAF 국제 네트워크, 그 우연과 만남의 순간들
–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로 보는 지역 기반 축제의 해외네트워크 구축 전략

김성일 |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BIAF) 수석프로그래머

나는 소위 말하는 '투니버스' 세대는 아니지만, 일요일 오전이면 KBS에서 방영하던 디즈니 만화동산과 우리말 더빙과 한국식 이름으로 선보인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꽤 많이 보고 자랐다. 《우주소년 아톰》, 《사파이어 왕자》, 《은하철도999》, 《천년여왕》 그리고 《미래소년 코난》을, 중고등학교 무렵에는 AFKN을 통해 《마크로스》를 시청했고, 디즈니의 황금기라 할 만한 《인어공주》, 《미녀와 야수》, 《알라딘》, 《라이온 킹》, 《포카혼타스》를 극장 스크린에서 만나는 경험을 했다. 대학교 땐 TV 시리즈 《신비한 바다의 나디아》, 《신세기 에반게리온》, 《그 남자 그 여자의 사정》, 그리고 지브리 스튜디오의 《귀를 기울이면》, 《추억이 방울방울》, 《마녀배달부 키키》 등의 비디오 CD를 수집했던 기억이 있다.

2009년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BIAF)에서 일을 시작한 이후, 나는 위 애니메이션 작품들을 떠올리며, 《은하철도999》의 린타로, 그리고 《이웃집 토토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미야자키 하야오의 방한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꿈꾼 적이 있다.
신종 플루로 2009년을 보내고 2010년, 그야말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장을 가게 되었다. 《신비한 바다의 나디아》와 《신세기 에반게리온》의 제작사 가이낙스를 찾아갔고, 그날 행운이 찾아왔는지 국제 담당자인 유카 하라와 부사장이자 프로듀서인 다케다 야스히로를 만날 수 있었다. 이날의 인연은 BIAF 2010-2013의 4년간 《왕립우주군》, 《천원돌파 그렌라간》 상영과 《신비한 바다의 나디아》, 《에반게리온》 전시, 그리고 스페셜 토크로 이어졌다. 가이낙스의 감독 야마가 히로유키와 캐릭터 디자이너 사다모토 요시유키가 방한하여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깜짝 등장하면서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찍기도 했다.

2012년 도쿄에선 《마크로스》 시리즈와 《천공의 에스카플로네》 감독 카와모리 쇼지가 일하는 사테라이트(SATE LIGHT)를 찾았고, 일을 배우기 위해 프랑스에서 온 애니메이터 4명의 작업 과정을 보면서 신기해했던 기억이 남아 있다. 스튜디오에서 만난 카와모리 쇼지 감독은 2013년 BIAF를 찾았고, 마스터클래스에서 레고(Lego)로 만든 마크로스 3단 변신 과정을 시연했다.

2010년 프랑스 안시 출장에서는 한국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던 미국 애니메이터를 만났는데, 한참 이야기를 나눈 후에 그가 《인어공주》, 《알라딘》, 《공주와 개구리》, 《모아나》를 만든 존 머스커 감독이란 것을 알고 깜짝 놀란 적이 있다. 1년 후, 2011년 BIAF 초청으로 존 머스커 감독은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는 사촌이 6.25 전쟁 당시 참전했었다며 지금의 남북한 상황을 궁금해했는데, 영화제가 끝나고 함께 DMZ 투어를 하기도 했다.
디즈니의 존경받는 감독인 존 머스커 감독의 방한은 BIAF가 국제영화제로서 자리 잡는 데 큰 전환점이 되었으며, 2012년에는 그의 소개로 《포카혼타스》, 《환타지아 2000》의 에릭 골드버그 감독이 부천을 방문했다. 2017년 영화예술아카데미(오스카)에 BIAF 추천 서한을 보내기도 한 에릭 골드버그 감독은 BIAF 2017에 《미키의 크리스마스 캐럴》과 《곰돌이 푸의 모험》으로 유명한 디즈니의 레전드 감독 버니 매틴슨과 함께 다시 한국을 찾았다. 그들과 부천 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함께한 디즈니 《환타지아 2000》 콘서트는 일과 관련하여 나에게 가장 뿌듯한 순간이기도 했다.
에릭 골드버그 감독은 2018년 미키마우스 탄생 90주년을 맞아 다시 한국을 찾았다. 《생방송 톡! 톡! 보니하니》에도 출연하여 그의 시그니처인 램프의 요정 지니와 미키마우스 드로잉을 시연하고, 자신이 맡았던 목소리 연기를 보여주며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존 머스커와 에릭 골드버그 감독은 나에게 디즈니·픽사의 주요 감독들, 즉 《라이온 킹》의 로저 알러스, 《몬스터 주식회사》, 《심슨》의 데이비드 실버맨, 《라따뚜이》, 《인크레더블》의 브래드 버드, 《메리다와 마법의 숲》의 브렌다 채프먼, 《겨울왕국》의 제니퍼 리, 《인사이드 아웃》, 《소울》의 피트 닥터를

소개해주었는데, 이들 중 또 몇몇이 머지않아 BIAF를 찾게 될 것이다.

애니메이션의 신화적인 감독들의 방문 이후, 더욱 많은 해외 게스트가 BIAF를 찾았다. 《진격의 거인》 제작사 WIT의 대표인 조지 와다 프로듀서, 《전국 바사라》의 노무라 카즈야 감독이 2011년, 《철완 아톰》의 프로듀서로 데즈카 프로덕션 대표인 시미즈 요시히로는 2012년 BIAF를 방문했고, 《미래소년 코난》의 프로듀서 코지 타케우치는 2017년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도라에몽》과 《해수의 아이》 와타나베 아유무 감독은 2021년 개막작 《항구의 니쿠코》를 들고 BIAF를 찾았고, 심사위원장도 맡아 《귀를 기울이면》,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애니메이터 코니시 켄이치와 멋진 BIAF 2021 포스터와 트레일러를 연출했으며, 그해의 심사위원으로 활약했다. 미야자키 하야오와 함께 작업한 애니메이터들이자 감독인 카타부치 스나오, 코사카 키타로, 키요타카 오시야마, 치에 우라타니, 그리고 신작 장편 《그대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의 캐릭터 디자이너 요시미 이타즈 등이 차례로 BIAF를 방문했다.

2016년에는 프랑스 국영철도파업을 뚫고 찾아간 방문을 계기로, 한국-프랑스 수교 130주년을 맞아 《벨빌의 세 쌍둥이》,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정원》의 프랑스 거장 실뱅 쇼메가 한국을 찾았다. 이 재능 많고 독특한 감독은 지금 《마르셀 파뇰의 위대한 삶》을 연출, 곧 공개할 예정이다.

2017년 12월 26일,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은 그동안 다녀간 (아카데미 회원) 감독들과 안시, 자그레브, 오타와애니메이션영화제의 추천과 지지가 이어지며, 대한민국 최초 아카데미 공식 지정 국제영화제가 되는 명예를 얻게 되었다.

애니메이션은 환상이다. 조르주 멜리에스의 영화를 일컫는 '트릭'에서 비롯해 아직까지도 애니메이션을 '트릭 필름'이라고 하는 것처럼, 환상은 우리에게 가능한 꿈을 이뤄주는 가장 강력한 마술이다. 여전히 나는 이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의 매력과 환상을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고, 그 생명의 마술을 믿는다.



BIAF2017 기자회견에서 홍보대사 신은수 배우와 함께 찍은 사진. 신은수 배우는 BIAF2018 디즈니 콘서트의 사회자로, 그리고 BIAF2022의 음악 부문 심사위원으로 활약했다.

김 성 일

2009년부터 현재까지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BIAF) 수석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다. 2009년, 갑자기 애니메이션에 뛰어들어 정말 많은 애니메이터들과 만나고 소통했다. 애니메이션 장르의 매력을 전파하기 위해 그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프로그래밍'하려 한다. 현재 《인사이드 아웃》, 《소울》의 피트 닥터 감독과 《목소리의 형태》, 《리즈와 파랑새》의 야마다 나오코 감독의 차기작 상영과 마스터클래스 성사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부록: 역대 참여 사업

2018년

지자체	수행단체	교류지역	콘텐츠	분야	사업명	비고
강원 영월	영월문화재단	중국 웨이하이	시각예술, 융복합	전시, 공연	영월 동방채묵 아트페스타	'18년 우수사업 선정
경기 이천	이천도자기 명장회	프랑스 파리	도자	전시, 제작 시연	2018 세계문화유산 장인박람회 이천도자기명장 도자 제작 시연	
강원 원주	원주영상 미디어센터	탄자니아 잔지바르	전통음악, 미디어	워크숍, 페스티벌	사운드와 영상을 매개로 한 원주-잔지바르 콜라보 프로젝트	
경기 안산	안산문화재단	중국 옌타이	미디어, 융복합 무용극	전시, 공연	단원 김홍도, 길을 떠나다	
전북 전주	전주문화재단 한옥마을 상설공연단	이탈리아 피렌체, 만토바, 노비리구레, 로마, 베네치아	마당창극	공연	르네상스 도시 피렌체에서 피어난 전주마당창극 《변사또 생일잔치》	
충북 괴산	문화공간 그루	프랑스 몽톨리외	한지, 사물놀이, 활자, 종이 제작	전시, 공연, 워크숍	한지, 소리를 담고 바람에 날다	
충북 청주	청주공예 비엔날레 조직위원회	호주 시드니	식문화, 공예	전시, 워크숍	〈선비의 식탁〉 국제교류전	

2019년

지자체	수행단체	교류지역	콘텐츠	분야	사업명	비고
경기 광명	광명문화재단	독일 라이프치히	업사이클	전시, 워크숍, 세미나	국제 업사이클 아트 디자인 문화교류 행사	'19년 우수사업 선정
충남 서천	서천군립예술단	몽골 울란바토르	전통음악, 무용	전시, 공연, 워크숍	NOMAD, 예술로 만나다	
강원 영월	영월문화재단	중국 웨이하이	시각예술	전시, 레지던시	별마로 7개월을 그리다	'18년 우수사업 선정으로 인한 연속지원
경기 이천	이천나드리	프랑스 파리	도자	전시, 워크숍, 제작 시연	도자기 제작 시연 2탄 파리 루브르 이천 도자기 명장, 세계를 빚다	
경남 창원	발해 1300호 기념사업회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시각예술, 국악	전시, 공연	선린우호 해동성국 발해가 잇다	
경북 고령	고령문화원	이탈리아 크레모나, 크레마	마당놀이, 가야금	공연, 전시, 세미나	대가야의 소리 《가야금, 마당놀이 풍동전》 해외공연	
전남 순천	두루미 과학예술센터	프랑스 낭트	공예, 융복합 무용극, 식문화	전시, 공연, 워크숍	2019년 순천 방문의 해 기념, 순천만 생태 기반 문화관광 융복합 콘텐츠 확산 및 도시재생 기반 문화 도시 네트워크 협력·교류	
충남 공주	웅진문화회	베트남 후에	백제기악	공연	세계문화유산 우호협력도시 전통문화 교류 공연	
충북 옥천	옥천문화원	일본 후쿠오카, 교토, 오사카	시문학	포럼, 작문대회	제9회 일본 지용제	
충북 충주	택견보존회	폴란드 그단스크	택견, 사물놀이	공연, 워크숍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택견 & 사물놀이 한-폴란드 국제 문화예술 교류	

2020년 추진지원

지자체	수행단체	교류지역	콘텐츠	분야	사업명	비고
경기 김포	김포문화재단	미국 글렌데일	현대미술	전시, 워크숍	한강 프리존, 강을 잃어버린 도시 展	'20년 우수사업 선정
전남 해남	시화풍정 담소	인도 샨티니케톤	해남굿, 시문학	공연, 워크숍, 시 낭송	평화의 시마을 해남 (Shanti Poemtopia Haenam)	
경기 광명	광명문화재단	이탈리아 로마	업사이클	전시, 워크숍, 세미나	국제 업사이클 디자인 위크	'19년 우수사업 선정으로 인한 연속지원
충남 서천	서천군립예술단	몽골 울란바토르	전통음악, 무용	전시, 공연, 워크숍	서천, 몽골 문화예술창작교류 시즌2 "NOMAD, 예술로 만나다"	
경기 군포	한국연극협회 군포지부	러시아 우수리스크	연극	공연	한·러 수교 30주년 러시아 우수리스크 시립극단 창작연극 합동 영상공연	
경남 고성	고성농요보존회	러시아 모스크바	고성농요	공연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 모스크바 초청 고성농요 "차이콥스키 음악원" 영상공연	
경남 밀양	밀양아리랑 콘텐츠사업단	중국 한단	독립운동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 떠나는 아리랑 여행	
전남 목포	목포문화재단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남도민요	공연, 세미나	한·러 문화 실크로드 (Silkroad)	

2020년 기획지원

지자체	수행단체	교류지역	콘텐츠	분야	사업명	비고
경기 화성	화성시문화재단	스페인 타레가	거리 퍼레이드	공연, 워크숍	죽음의 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20년 우수사업 선정
충북 제천	제천문화재단	중국 장수	한방	전시, 워크숍, 영상 공유회	한방(약초) 자연치유의 예술적 만남	
경기 수원	수원시 국제교류센터	독일 프라이부르크	판소리	공연, 워크숍	수원의 〈정조가〉, 900년 역사의 음악도시 프라이부르크에 울려퍼지다	
경기 파주	파주시 시립예술단	미국 글렌데일	합창 음악극	공연	LA 글렌데일시 '위안부의 날' 10주년 기념 문화축제	
경북 포항	포항문화재단	일본 마이즈루	전통무용	공연, 워크숍	포항시·마이즈루시 문화교류 사업	

2021년 추진지원

지자체	수행단체	교류지역	콘텐츠	분야	사업명	비고
경기 김포	김포문화재단	미국 글렌데일	현대미술	전시, 워크숍	[김포시-글렌데일시 자매도시 교류사업] Borders: Visible/ Invisible, 경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20년 우수사업 선정으로 인한 연속지원
전남 해남	시화풍정 담소	인도 샨티니케톤	크로스오버	공연, 영상제작, 워크숍	평화의 시마을 해남II (Shanti Poemtopia Haenam II)	
경기 화성	화성시문화재단	프랑스 몽펠리에	창작무용, 공예	공연, 워크숍	효(孝)의 춤	'20년 우수사업 선정으로 인한 연속지원 및 '21년 우수사업 선정
강원 영월	영월미디어기자박물관	일본 히가시카와	사진	전시	2021 영월-히가시카와 국제사진교류전 "서로의 안부를 묻다"	
강원 정선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카자흐스탄 알마티	융복합	공연, 전시, 체험	정선군-카자흐스탄 알마티시 문화예술교류 "A-Culture Road"	
전북 전주	한국전통문화전당	몽골 울란바토르, 스페인 바라칼도·사라고사	전통놀이	개발연구, 특강, 워크숍, 콘퍼런스	국제 유사 전통놀이 기반 놀이콘텐츠 개발·운영	
전남 담양	담양군문화재단	중국 광저우	설치미술	전시	'담빛예술창고' 노드를 저장하다	'21년 우수사업 선정

2021년 기획지원

지자체	수행단체	교류지역	콘텐츠	분야	사업명	비고
경북 영주	영주문화관광재단	베트남 하노이	전통공연	공연, 워크숍	영주-하노이 국제문화교류: 선비의 삶	'21년 우수사업 선정
강원 인제	인제군문화재단 여초서예관	중국 항저우	서예, 산수화	전시, 학술발표	인제-항주 서화예술교류전 '서여초화매정 (書如初畵梅亭)'	
강원 강릉	강릉문화재단	러시아 이르쿠츠크	문학, 음악, 창작극	공연, 워크숍	강릉-이르쿠츠크 두 도시 이야기	
경남 진주	진주문화예술재단	미국 맥알렌	전통 등불	공연, 전시	희망의 등, '맥알렌' 가다	
전남 곡성	극단 마실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연극	공연, 워크숍	이야기 밥상에서 깊어가는 심청전 - 곡성을 넘어 캘리포니아 산호세로	








JUNE 11-12 2022
INNIS TOWN HALL
(2 Sussex Ave, Toron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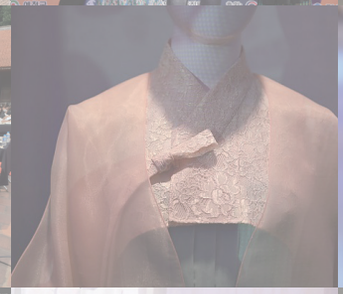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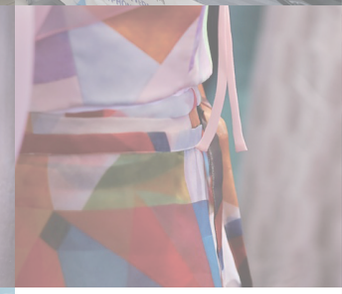
The 4th

TSFF - YISFF
국제교류 및 협력을 위한 MOU 체결
MOU Signing Ceremony for international exchange and cooperation
2022. 6. 13(M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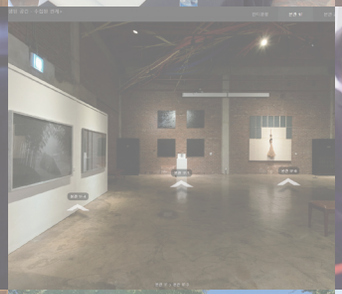
2022년
예천국제
스마트폰영화제
공모전!










재생된 공간
수집된 전제


"DANH NGÔN CỦA CHỦ TỊCH HỒ CHÍ MINH TRÊN THƯ PHÁP HÀN QUỐC"


Chủ Tịch Hồ Chí Minh




CHƯƠNG TRÌNH HỢP TÁC VIỆT NAM - HÀN QUỐC 2022
CUỘC THI VIẾT VÀ TRƯNG BÀY
"DANH NGÔN CỦA CHỦ TỊCH HỒ CHÍ MINH TRÊN THƯ PHÁP HÀN QUỐC"



The story of
INDONESIAN BATIK
JINJU SILK

국외 기관과의 협력
개념미술 제작을 위한 온라인 워크숍




지역, 잇다
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사업 2022

발행일	2023년 2월
발행인	정길화
발행처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주소	03920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330 DMC 첨단산업센터 203호
연락처	02-3153-1784
홈페이지	kofice.or.kr
기획	KOFICE 교류기반팀
디자인	PaTI 멋짓공작소

ⓒ 2023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본 도서에 수록된 모든 글과 사진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동의 없이 무단 전재·복제·배포를 금지합니다.

9 772982 635006 02
ISSN 2982-6357

KOFICE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